

“국회 정권의 교육자치 말살 기도 동조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누리과정 패키지법’ 의결 강한 반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국회가 어린이 집 무상보육예산의 45%만 정부에서 지원토록 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누리과정 패키지법’을 의결한 데 대해 “장권이 결여있어 기도해 온 지방교육자치 말살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누리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총괄토록 하는 이른바 누리과정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김 교육감은 5일 확대간담회에서 “국회 유상법 교편위원장이 ‘그동안 국회가 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강행해 온 정부의 행위에 대해 국회가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을 도와주는 뜻밖으로 오히려 쪽박을 깨서는 안된다’며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했을 때도, 국회는 다수결로 누리과정 패키지법안을 의결 확정했다”면서 “국회의 이 결정은 두고두고 지방교육자치 역사에서 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인들은 특히 정치성이

강한 법률을 설명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정치적 타협을 할 때도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게 있다. ‘원칙’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원칙, 법률은 국회만 제정한다는 원칙이다”고 말했다.

국회가 법률을 규정해 놓으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누구도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그럼에도 그러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위헌선언을 해서 그 효력을 없애버린다는 것, 그게 원칙이라는 것.

또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든 그 법률에 소반하는 조항들이 있다. 여기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헌법 원칙이 체계적당성의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체계적당성의 원칙은 하나의 법률 내에서 조항 상호간의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법률 상호간의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는데 서로 충돌한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원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은 시도교육청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교육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예산을 배정할 때는 총액으로 배정하게 되어있다”면서

“이제 국회가 스스로 새워놓은 원칙인데도, 국회는 이런 누리과정 패키지법안을 통해 칸막이를 해놨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국회의 이런 결정이 너무 한심해서 분노감을 억누를 길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우리가 방어할 것은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중심 미래지향적 시설

전주 민성초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

전주 민성초등학교가 국토교통부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전주 흥산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했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 설계에 주안점을 뒀다. 포켓공간 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만들고, 교사동 중앙에 도서관을 배치해 방과후에도 머물 수 있는 개방형이 특징이며, 지열 시스템과 태양광 등이 적용된 저탄소 녹색학교로 전기소비량도 낮았다. 우수시설학교는 교육부가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대학 부문 등에서 총 4차품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2월 중 시상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은 아이들이 성장하며 학습과 생활하는 공간으로,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민성초등학교가 국토교통부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전주 흥산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했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 설계에 주안점을 뒀다. 포켓공간 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만들고, 교사동 중앙에 도서관을 배치해 방과후에도 머물 수 있는 개방형이 특징이며, 지열 시스템과 태양광 등이 적용된 저탄소 녹색학교로 전기소비량도 낮았다. 우수시설학교는 교육부가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대학 부문 등에서 총 4차품을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2월 중 시상 예정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은 아이들이 성장하며 학습과 생활하는 공간으로,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를 그리다’

전북도교육청, 다문화 인식개선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주최로 열린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 교육자료 부문 우수상, 교육자료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인고등학교 김연지 학생은 ‘다문화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부문 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주유림초등학교 학부모 하이다 씨가 ‘낯선 나라에 어찌다 학부모’라는 사례로 교육수기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부남초병설유치원 장은홍 교사가 ‘은누리에 행복, 희망 새까마기’라는 주제로 교육

자료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12월 9일 일산 컨벤션에서 열린 ‘2016 다문화 나나들이 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되며, 올해 공모전에는 다문화 인식개선 UCC 부문 7편,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부문 8편,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자료 부문 11편,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수기 부문 23편 등 4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 발굴된 우수사례들은 다문화 나나들이 축제에 전시하고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되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교에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희망주길 바란다”

전북도교육청, 2017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라북도교육청은 7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에 2017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감 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광호 회장, 김광호에게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지원, 화재,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도내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도내 도민의 손길이 닿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희망을 전해주시길 바란다. 2017년 적십자회비모금에 교육계에서 일하는 분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은 “올해도 적십자 특별회비로 사랑을 전해주시신 김승환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에 감사드리며, 전달해주신 특별회비로 재해 이재민, 노인, 아동청소년, 이주민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2017년 2인도주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적십자회비모금 운동에 돌입했으며,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2017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릴레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재 유출은 이제 옛말

완주군 중학교 우수인재, 관내 고등학교로 대거 진학

완주군 내 우수 인재들이 지역 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9일 완주군은 이날 초·중·고교 교육현장 순회조사 결과,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우수인재가 74.9%가 관내 중학교생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교별로는 완봉고 68.3%, 완주고 79.1%, 고산고 84.1% 등이었고 접수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중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고교 진학률의 40.1%가 완주군 학생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완주학생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관내 일반 고등학교에 관내 중학교생이 많이 접수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 비중이 70%를 넘고 있는 만큼 내신을 비롯한 비교과 과정과 능숙한 진학 전략에 유리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이 오히려 대학입시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2017년 과외료로 개편된 완주군에 장학금 지원과 그동안 완주군에서 지원

하고 있는 인재수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내 고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명문고 육성 사업 지원 등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고교의 교장 및 교직원들이 그동안 각 중학교를 방문해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홍보한 것도 접수를 급증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완주군이 11월 8일 인재수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설명회를 개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설명회에서부터 대학입시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으며 지역적으로 유리한 능숙한 특별전형이나 내신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군은 설명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인재수 수업을 관련해 학생·수준별 수업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많았으며 따라 2017학년도부터는 인재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준별 모둠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아리랑 스마트 체험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헌정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주요행사 **세화테크** 대표이사 **이지연**

010-5488-2617

seohwa@seohwa.com

152-282-9817

152-282-1181